

## 文谷 金壽恒의 靈巖 流配 중 시문학

朴 明 姬\*

### 차 례

- |                     |                  |
|---------------------|------------------|
| 1. 머리말              | 4. 시문 교유의 持續과 의미 |
| 2. 景物의 낭만주의적 묘사     | 5. 맺음말           |
| 3. 鄉村 人士와의 교유와 시문제작 |                  |

### 1. 머리말

流配文學은 중앙과 거리가 있는 특수한 공간에서 얻어진 情懷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유배문학이란 주로 정치적 상황인 당쟁에 직면하여 패배한 자가 정적에게는 물론 군왕에게 미움과 배척을 당해 流刑囚로서 유배지에서 겪은 유배적 사실의 직접 체험과 그 감정적 내용 그리고 유배적 상황에 직면한 정신적 상황을 문학화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sup>1)</sup> 시인이자 정치인인 조선조 문인들의 경우, 봉당의 와중에서 유배의 길을 떠남은 혼란일이었기에 그만큼 많은 양의 문학 작품이 산출될 수 있었다.

文谷 金壽恒(1629~1689)은 安東 金氏 17세 손으로 자는 久之요, 호는 文谷, 시호는 文忠이다.<sup>2)</sup> 조부는 淸陰 金尙憲으로 당시 좌의정 벼슬로 병자호

\* 전남대 호남문화연구소 학술연구교수.

1) 梁淳秘, 「文學社會學的 시각에서의 流配文學攷」, 『김기동박사 회갑기념논문집』(학연사, 1986), p.228.

란 때 斥和派의 거두로 활동하다 중국 瀋陽까지 잡혀갔으며, 부친 光燦은 同知中樞府事의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선조의 뒤를 이은 문곡은 17세의 이른 나이에 벌써 泮試에 수석 합격하여 5년 후 성균관전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관직 생활을 하게 된다. 그러나 그의 관직 생활은 순탄치만은 않아 浮沈이 자주 반복되었다. 두 차례의 禮訟 문제와 庚申大黜陟, 己巳換局, 甲戌換局 등은 봉당의 와중에서 문곡이 겪었던 일련의 큰 사건들로 기록되어 있다. 그는 당대 西人의 영수였던 尤菴 宋時烈과 생각을 같이했던 이유로 같은 파 사람들에게는 추앙받는 인물이었지만, 반대파에게는 배척받기에 충분하였다. 따라서 문곡이 유배의 길을 갔던 것도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서 연유했다고 할 수 있다. 1674년 2차 예송 즉, 갑인예송에서 서인이 패하고 南人이 이기자 당시 영의정 벼슬에 있던 형 壽興이 쫓겨나게 된다. 그 대신 문곡이 좌의정으로 임명되는 영광을 맞이하게 되지만, 그것도 잠시 숙종이 즉위한 乙卯年(1675) 집권파인 남인의 미움을 받아 결국 전라남도 靈巖으로 유배의 길을 떠난다. 이때는 그의 나이 47세 7월로 햇별이 따가운 한 여름이었다.

문곡은 처음 영암이라는 낯선 곳에 와서 정신적인 안정을 찾지 못하나 현 지인의 도움으로 차츰 유배 생활에 적응해가기 시작한다. 따라서 행동 반경을 점차 넓혀가며 주변의 승경을 둘러보는가 하면, 현지 鄉村 士族들과 교류하며 적지 않은 시문을 남긴다.

본 논고는 당시 영암 유배 생활 중 남겼던 문곡의 시문을 세 방향에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첫째, 향촌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마주치는 景物을 어떻게 묘사했는가를 보고자 한다. 이는 문곡의 관물 태도 및 인식의 정도 등과 관련되는 문제로 유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어떠한 입장을 견지했는가를 보여주는 문제이기에 소홀히 넘길 수 없다고 생각한다. 둘째, 문곡은 당시 향촌의 여러 사족들과 교유했던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러한 실상을 시문을 통해 검토해보고 의미를 되짚어보고자 한다. 셋째, 문곡의 영암 유배는 결국

- 2) 문곡에 대한 연구로는 安末淑, 「金壽恒의 詩世界」, 『東洋漢文學研究』 11집, 동양한문학회, 1997. / 안말숙, 「김수항의 和陶詩 고찰」, 『수련어문논집』 25집, 수련어문학회, 1999. / 졸고, 「文谷 金壽恒 시문에 投影된 月出山의 이미지」, 『湖南文化研究』 29집, 전남대 호남문화연구소, 2001. 등이 있다.

그의 아들들인 農巖 金昌協과 三淵 金昌翕 등이 영암과 인연을 맺는 계기를 만들어주었다. 따라서 이를 시문이 제작된 진전된 상황으로 파악하고, 교유의 특징과 문곡 영암 유배의 현재적 의미를 새겨보려고 한다.

## 2. 景物의 낭만주의적 묘사

영암에 도착한 문곡은 처음에는 지금의 읍에다 적거지를 정한다. 그러나 약 두 달 후 어떤 이의 도움으로 鳩林마을(전남 영암군 郡西面 소재, 이하 구림으로 지칭)<sup>3)</sup>로 옮기어 만 3년 정도 구림인이 되어 살아간다.<sup>4)</sup> 나라의 죄인이 되어 낯선 타향에 오게 되었으니 처음부터 마음의 안정을 찾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차차 주위의 여러 鄉村 士族들의 도움을 받아 주변 환경에 적응해가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며 月出山 등의 주위 승경도 둘러보게 되는데, 다음 시의 경물에 대한 묘사는 바로 현장에서 직접 본 것을 토대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       |                     |
|-------|---------------------|
| 茲鄉信樂土 | 이 고장은 참으로 樂土로다      |
| 山澤佳可娛 | 산과 못 아름다워 즐길만하네     |
| 層巒開洞府 | 층층이 진 산은 마을을 열었고    |
| 遠浦繞村墟 | 먼 포구는 마을 터에 둘러있구나   |
| 向來落南土 | 지난번에 남쪽 땅으로 내려와     |
| 於焉多卜居 | 그 간에 터잡고 산 곳 많았지    |
| 岸岸竹成林 | 해안마다 대나무로 숲을 이루었고   |
| 家家梅並株 | 집집마다 매화 그루 나란히 하였네  |
| 溝塍紛繡錯 | 도랑과 밭두둑엔 많은 명주 뒤섞이어 |
| 原野何曠如 | 들판은 어찌 그렇게 넓은가?     |

3) 『新增東國輿地勝覽』卷35 靈巖條 古跡 崔氏園이라는 항목을 보면, 鳩林마을 명칭 유래가 신라시대 고승인 道詵國師와 관련되어 있음을 적고 있다. 謠傳 新羅人 崔氏園中 有瓜長尺餘一家 頗異之 崔氏女潛摘食之 歆然有娠彌月生子 其父母惡其 無人道 而生置之竹林 居數七日 女往視之 鳩驚來覆翼之 還告于父母 父母往見異之 取而養之 及長 捉髮爲僧 名道詵 入唐 傳一行禪師地理之法 而還九踏山觀水多有神驗後名其地曰鳩林.

4) 문곡의 영암 생활에 대해서는 줄고, 전계논문 참조.

#### 4 한국문학논총 제 31 집

杭稻歲常登 벼 수확은 해마다 늘 풍년들고  
 魚蝦味有餘 물고기와 새우는 맛이 있구나  
 里社日過從 마을제사 날마다 찾아드니  
 樽罍不曾虛 술단지 일찍이 비어지질 않는구나  
 吾幸得所託 내 다행히 위탁할 바를 얻었으니  
 新詩安可無 새로운 시가 어찌 없겠는가?<sup>5)</sup>

중국 진나라 陶淵明의 전원시에 차운한 작품이다. 문곡 자신이 영암으로 유배의 길을 온 1년 후에 자신이 살고 있는 구림을 중심으로 한 주변 승경을 마치 스케치하듯 묘사하였다. 편의상 두 행을 한 구로 묶어 살피게 된다면, 모두 8구로 이루어진 짧은 시문이다.

먼저 문곡은 1구에서 구림을 ‘樂土’라고 하며, 그 이유로 주변의 산과 호수를 들고 있다. 문곡 당시와 현재 구림의 모습은 마치 桑田碧海하듯 많은 지형적 변화를 겪었다. 구림은 문곡이 오기 전부터 지형적 변화를 차츰 보이기 시작하는데, 1540년에 바로 指南들이 이미 개척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1540년 경 나주목사를 지낸 林九齡(1501~1562)이 지남제를 만들어 대규모 농지를 확장한다. 지남제는 해발 5~10m의 구릉으로 연결된 독으로 이 제방을 축으로 천연 두락의 농토가 새롭게 생겨나는데 이를 지남들이라고 부른다.<sup>6)</sup> 이 뿐만 아니라 1940년대에 이루어진 鶴坡農場 간척사업<sup>7)</sup>은 그나마 그 때까지 볼 수 있었던 많은 자연 풍광을 변화시켰고, 최근에 이루어진 영산강 간척사업으로 인해 옛모습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학파농장 간척이 이루어지기 전에 구림 서부는 뱃길인 西湖江을 따라 나 있었고, 서호강을 끼고 광대한 갯벌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구림 주변에서 갯벌과 호수 등을 찾기는 어렵다. 그만큼 그동안 심한 지형적 변화가 있었음을

5) 『文谷集』卷7, 次歸園田居韻 其四.

6) 정근식, 「지역사회의 장기구조사의 구상-구림을 중심으로-」, 『호남문화연구』 28집(전남대 호남문화연구소, 2001), p.40.

7) 학파농장은 당시 마을 富戶였던 玄基奉에 의해 이루어졌다. 현기봉은 연주현씨 중 한사람인데, 일본 메이지 대학을 거쳐 1920년에는 호남은행을 세운 장본인이기도 하다. 전남도평의회 의원, 중추원참의, 시국대책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1939년부터 간척사업을 허가받아 1943년부터 본격적인 간척사업을 감행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정근식, 전제논문 참조.

말해주는 대목이다. 2구의 주변 승경 묘사도 1구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는데, 산의 모습을 ‘층층이 저 있다’라고 한 것은 기암 괴석이 즐비한 월출산을 두고 이른 듯하다. 3구를 지나 4구에서 7구까지의 내용도 실지 경물의 모습을 그대로 묘사했다고 할 수 있다. 해안마다 대나무가 숲을 이루었는가 하면, 집집마다 매화나무가 즐비하고, 밭에는 명주가 나 있고, 농사는 해마다 풍년들며, 때문에 마을 제사 때의 인심도 풍부함을 7구에서 적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8구에서는 이렇듯 좋은 승경을 지녔으니 새로운 시가 없을 수 없어 도연명의 전원시에 차운하게 되었다라고 하였다.

경물을 묘사한 또 한 편의 작품을 보자.

|         |                                            |
|---------|--------------------------------------------|
| 鳩林勝槩擅南隅 | 구림의 좋은 경치 남쪽 모퉁이를 차지하여                     |
| 別有閒人樂事俱 | 따로 한가한 사람이 있어서 즐거운 일 함께 하네                 |
| 檻外晴雲來月嶽 | 난간 밖 갠 구름은 월출산에서 오고                        |
| 門前春水散西湖 | 문 앞의 봄물은 西湖로 흩어지네                          |
| 舟回竹島魚登網 | 배로 竹島를 도니 물고기들 그물에 오르고                     |
| 碁罷梅窓酒滿壺 | 바둑 끝낸 매화 핀 창엔 술이 향아리에 가득                   |
| 天放似君誰不羨 | 하늘이 놓아준 그대 같은 이를 누가 부러워하지 않으랴!             |
| 白頭遷客愧迷塗 | 흰 머리의 귀양객은 갈길 못찾아 헤매이니 부끄럽구나 <sup>8)</sup> |

당시 曹敬燦이라는 향촌 사족의 소유인 安用이라는 당에 부치어 지은 시이다. 안용이라는 당을 짓고 사는 조경찬의 한가로운 삶과 문곡 자신의 유배에서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대비하며 부러움을 드러내놓았다. 2구의 월출산, 서호 등의 지명은 이미 앞의 시에서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낯설지는 않다. 또한 3구에 나온 豐漁의 모습과 인심의 후덕함 등도 익히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여유와 한적함이 함께 어울려져 읽는 자로 하여금 넉넉함을 느끼게 한다.

다음 작품은 경물 묘사와 함께 문곡 자신의 감정이 혼용되어 있지만, 마찬가지로 여유와 한적함을 느끼기에는 충분하다.

醉倚溪邊石 취해 시냇가 바위에 기대어

8) 『文谷集』 卷4, 寄題曹文敬燦安用堂.

## 6 한국문학논총 제 31 집

閒窺竹下塘 대나무 아래 연못을 한가로이 바라보네  
 藉苔爲坐席 이끼를 깔아 앉을 자리 만들고  
 剝橘當流觴 굴 벗겨서 흐르는 물에 술잔으로 띄워보네  
 水奏宮商曲 물은 宮商의 가락을 연주하고  
 山開綿繡粧 산은 비단에 수놓은 듯 단장하였네  
 觀魚知有樂 물고기 관찰하는 것도 즐거움이 있으니  
 吾不羨濂梁 난 濂梁의 일들이 부럽지 않네<sup>9)</sup>

도갑사는 월출산에 있는 사찰로 도선국사가 세웠다고 전해진다. 문곡은 4년에 가까운 유배 생활 중 월출산을 두 번 유람했는데, 유람하던 중 도갑사에도 들러 그곳 스님들의 환대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나 있다.<sup>10)</sup> 위시는 바로 그 도갑사 북쪽에 있는 작은 연못을 바라보며 자신의 소회를 덧붙인 작품이다. 술에 취한 작품 속 화자는 대나무 아래에 있는 연못을 한가롭게 바라다 보고 있다. 때문에 이런 한가로움으로 인해 결국 물소리조차도 마치 음악이 연주되는 듯하고, 주변 산의 경치는 명주에 수를 놓은 듯하하다고 묘사할 수 있었던 것이다. 마지막 4구의 내용은 濂溪閑想, 즉 莊子가 濂梁 위에서 물고기가 노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또 濮水에서 낚시질을 하면서 楚王이 부르는데도 응하지 않았다는 고사를 인용하여 속세를 떠나 자연을 즐기는 마음을 담았다.

이처럼 문곡은 주변 승경을 한적하고 유유자적하게 묘사했음을 알 수 있다. 곧, 이런 문곡의 낭만주의적이고 한적한 경물 묘사는 자신의 입장을 중국 북송의 시인인 蘇軾과 동일시 한 대목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문곡이 유배를 당해 영암으로 오던 중 그의 아들 창협이 슬픈 감정을 담아 시로 읊었던 모양인데, 마치 소식이 유배를 가면서 읊었던 것과 情境이 일치하더라고 적고 있다.<sup>11)</sup> 뿐만 아니라 자신이 12월에 월출산의 孤山寺에 놀러 갔는데, 이는 마치 소식이 杭州 지방관으로 있을 당시 고산사라는 절에 놀러갔던 것과 일치했다고 하며<sup>12)</sup> 다음과 같은 시를 남긴다.

- 
- 9) 『文谷集』卷4, 道岬北池.  
 10) 문곡의 월출산 관련 시문 연구는 줄고, 전개논문 참조.  
 11) 『文谷集』卷3, 族子盛最 以金吾郎押余 行到靈巖 還歸 臨別 協兒偶吟謫仙詩句 暗合今日情境 故足成以贈之. 月出青山送行子 / 四邊苦竹秋聲起 / 分明千載謫仙詩 / 情境依然今日是.

臘日孤山寺 臘日 孤山寺에서

千秋復此游 천 년의 이 놀음 다시 하네  
我無坡老韻 나에게는 東坡의 운치 없으나  
僧有惠師流 스님 중 惠勤·惠思와 같은 분 있도다  
洞雪封巖徑 산골 눈은 바위 길을 막아버렸고  
溪雲護石樓 시내 구름은 돌 누각을 감싸안았네  
西湖生眼底 西湖가 눈 아래에 바라보이니  
剛不羨杭州 굳이 杭州가 부럽지 않다네<sup>13)</sup>

월출산의 고산사와 항주의 고산사, 월출산 고산사의 스님과 항주 고산사의 惠勤·惠思 스님, 영암 서호와 항주의 서호 등을 서로 대비하여 일치함을 보여주려고 하였다.

소식이 정치 생활을 했던 당시는 신법당과 구법당의 政爭이 끊이지 않았다. 신법당은 王安石이 주축이 되었고, 소식은 구법당에 속해 신법당이 추진하는 전반적인 정책을 격렬하게 비난하였다. 과거정책을 반대하는 〈議學校貢舉狀〉을 비롯하여 〈諫買浙燈狀〉 등의 상소문을 잇달아 내놓으며 왕안석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때문에 이러한 소식을 그대로 묵과할 수 없었던 왕안석인지라 그를 중앙 정치에서 떨어지게 하기 위해 杭州通判으로 축출해버린다. 이때가 1071년 12월 소식의 나이 36세로 그후 1074년까지 항주 생활을 하게 되었다. 당시 가장 특징적인 것은 불교에 심취했다는 점이다. 그전에도 불교 교리를 익히기는 했으나 그에 만족할 수 없어 실제 절을 찾고 고승들을 방문하여 교리와 생활이 일치한 살아 움직이는 불교의 실체를 배우고자 한다. 그래서 그가 찾은 절은 여러 곳이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고산사였다. 그 고산사에 있는 혜근과 혜사 스님은 당시 꽤 이름이 알려져 있었는데, 항주에 도착한 소식은 3일만에 그들을 만나 살아가는 진솔한 이야기로 꽃을 피운다. 이런 인연으로 소식은 혜근의 시집에 서문까지 써주게 되는데,<sup>14)</sup> 문곡은 지금 자신이 월출산 고산사에 간 것이나 소식이 항주

12) 『文谷集』卷3, 訪孤山寺 留題示居僧有入定僧數人棲寺, 昔蘇東坡在杭州 臘日游孤山寺 有詩紀其事 余謫朗州 聞月出孤山之勝 偶乘興訪之 是日適嘉平也 事有曠世而相符者 亦異哉 遂留詩寺壁 以備山門一勝事云.

13) 『文谷集』卷3, 訪孤山寺 留題示居僧有入定僧數人棲寺.

14) 소식과 혜근·혜사 스님과의 인연에 대한 내용은 홍우흠, 『소동과 문학의 배

고산사에 간 것, 그리고 그 곳에서 마음이 통하는 스님을 만나게 된 것 등이 같다고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소식이 和陶詩를 쓴 것과 자신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동일시한다.

蘇東坡가 惠州에 있을 때 陶潛의 시에 화운하였는데, ‘白鶴 봉우리에 새로 살 곳 이루어 嘉祐寺로부터 옮기어 들어왔다. 큰 아이 邁가 나와 이별한 지 삼 년만에 못 손자들 이끌고 만리 먼 곳에 이르니 老朽와 憂患의 나머지에 혼연치 아니함이 없었다’라고 이른 곳이 있었다. 그 시에 이르기를 “이른 아침 뚝뚝뚝 / 누가 나의 오두막을 두드리는가? / 자손들 먼리에서 이르러 / 우스개 소리 어지럽구나 / 늘어뜨린 머리 자르고 / 이 박으로 만든 호리병을 덮네 / 삼 년이 一夢 같은데 / 곧 다시 너를 보는가”라고 하였다. 이제 내가 남쪽으로 옮긴 것이 이미 삼 년이 되었다. 성의 서쪽에 우거하던 집에서 겨우 성의 남쪽으로 옮기니 큰 아이가 가족들을 이끌고 와서 만나게 되었다. 일이 마침 소동파와 더불어 서로 같아 기록치 아니 할 수 없어 멋대로 한 시를 지어 아 이에게 보이노라.<sup>15)</sup>

소식은 정쟁의 소용돌이에서 여러 차례 부침을 하였는데, 혜주는 그의 나이 59세에 마찬가지 유배를 가서 2년 정도 보냈던 곳이다. 이 시기 소식은 도연명의 은둔과 담박함을 좋아하고, 淸淨無爲와 養生長生을 강조하는 도가에 대해서도 이전보다 더 큰 관심을 표시하였다.<sup>16)</sup> 10월 2일에 혜주에 도착한 소식은 처음에는 合江樓에서 지내나 10월 18일 경 嘉祐寺로 遷居한다. 가우사로 옮기니 장남 蘇邁가 자식들을 이끌고 소식을 뵈러 왔다. 소매는 그 동안 韶州 仁化令으로 있었기 때문에 소식과 자주 만날 수 없었는데, 3년만에 이루어진 재회였다. 때문에 그 만남 기쁨도 컸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당시 소식은 그런 감정을 위 인용문에서와 같은 시로 대신하였다. 이러한 일들을 문곡은 자신의 상황과 동일시하였다. 문곡은 영암에 도착한 후 3년이라는 세

경」(영남대학교출판부, 1983), pp.98~100 참조.

15) 『文谷集』卷4, 東坡在惠州和陶詩 有云白鶴峰新居成 自嘉祐寺遷入 長子邁與余別三年矣 挈携諸孫 萬里遠至 老朽憂患之餘 不能無欣然 其詩曰 旦朝丁丁 誰款我廬 子孫遠至 笑語紛如 剪髮垂髻 覆此瓠壺 三年一夢 乃復見余 今余南遷 亦已三年矣 自城西僑舍 纔移城南 而長兒挈家來會 事適與坡翁相符 不可不忘 漫述一詩示兒.

16) 王水照 著 / 曹圭百 譯, 「중국의 문호 소동파」(월인, 2001), p.196.

월이 흐른 뒤 거처를 옮기는데, 그때 마침 장남인 昌集이 가솔들을 이끌고  
되려 왔던 모양이다. 위 마지막 글 내용은 바로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  
런 글을 이어서 문곡은 다음과 같은 시를 남긴다.

|       |                       |
|-------|-----------------------|
| 坡翁謫惠州 | 동과 늙은이 해주로 귀양갔을 때     |
| 有子挈家至 | 자식 있어 식구들을 데리고 갔었지    |
| 三年乃復見 | 삼 년만에 이내 곧 다시 만나      |
| 欣然詩以志 | 흔연히 시로써 뜻을 하였네        |
| 自我竄海濱 | 나 바다 외진 곳에 귀양와서는      |
| 青楓三鑽燧 | 푸른 단풍이 세 번이나 물들었지     |
| 骨肉隔殊方 | 골육이 다른 곳에 격리됨에        |
| 思之邈難致 | 생각이 하도 멀어 이르기 어려운데    |
| 爾今來觀我 | 너는 지금 와서 나를 보는구나!     |
| 千里携諸稚 | 천리 길 못 아이들 데리고        |
| 垂髫儼環珞 | 늘어뜨린 머리 옥고리로 단정히 하고   |
| 繞膝爭嬉戲 | 무릎에 둘러싸여 즐겁게 장난치네     |
| 別來見存沒 | 이별 뒤에 살았는지 죽었는지 살펴보니  |
| 歡極却垂淚 | 반가움이 극을 다해 문득 눈물이 흐르네 |

이하 생략

1·2구는 소식이 해주에 있을 때 장남 소매가 3년만에 가솔을 이끌고 와  
만나게 된 반가움을 시로 대신했던 일을 적었다. 그리고 3구부터는 문곡 자  
신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 3구의 푸른 단풍을 세 번 鑽燧했다는 말은 새  
해가 세 번 바뀌었음을 말한다. 그 동안 가족들과 떨어져 쓸쓸히 지내야만  
했던 문곡은 4구에서 그러한 자신의 처지를 말하고 있다. 6구는 마치 소식의  
손자들이 소식에게 재물을 부렸던 것과 비슷한 상황을 연상하게 만든다.

이처럼 문곡은 유배지에서 자신의 처지를 소식의 유배지 생활과 서로 대  
비하며 동일함을 드러내려고 하였다. 이는 바로 그가 소식의 생활을 닮고자  
했음을 의미하는데, 이의 귀결점이 바로 화도시 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문  
곡은 영암 유배생활 중 50수의 화도시를 남기는데, 이도 소식을 추종하던 가  
운데 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sup>17)</sup> 소식은 비록 타의의 힘에 의해 유배의 길

17) 문곡의 화도시에 대한 연구는 安末淑의 전제 논문에서 이루어졌는데, 창작의 사  
회·역사적 배경에 대한 천착이 없어 아쉬움으로 남는다.

을 왔지만, 도연명이 그랬던 것처럼 자연에 동화하여 전원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며 도연명의 시에 화운을 하여 모두 124수의 작품을 남긴다. 즉, 소식은 일찍이 ‘나는 시인에 대해서 유별나게 좋아하는 사람은 없으나 오로지 연명 시만은 좋아한다’라고 했는데, 화도시를 통해 이를 증명했다고 하겠다.

이처럼 문곡은 소식이 유배를 갔던 것과 자신의 처지를 여러 면에서 동일시하였는데, 소식이 했던 것처럼 화도시를 제작한 것은 문곡도 진정한 전원생활을 즐겼던 도연명의 유유자적하고 한적한 삶의 자세를 배우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문곡의 경물에 대한 인식태도라고 할 수 있다. 문곡은 앞에서 이미 보았던 것처럼 자연 경물을 묘사하는데 있어 자신이 직접 거기에 개입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을 하지는 않는다. 다만 경물을 대하되 관조하거나 낭만적인 자세를 갖추고자 한다. 때문에 자연 자체는 아름답게만 묘사되어 진솔하고 역동적인 삶의 모습은 엿볼 수 없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 3. 鄉村 人士와의 교유와 시문제작

영암으로 유배 온 문곡이 주로 교유한 인사는 첫째, 월출산의 도갑사를 위시한 크고 작은 암자의 스님과 둘째, 구림 마을의 士族들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미 언급했듯이 문곡은 마음의 안정을 얻어가자 주위 승경을 유람하기 시작하는데, 험악한 월출산 등반도 두 번 강행한다. 첫 번째 등반은 구림으로 옮긴 지 1년 3개월 후인 12월 겨울에 이루어졌다. 타관살이를 위로해주며 상대해주는 산이었지만, 바위로 둘러진 험악한 바위산인지라 갈 수 있는 기회는 그리 많지 않았다. 문곡의 나이 48세로 추운 12월 산행을 한다는 것이 다소 버겁기는 했지만, 그의 아들 농암과 함께 여러 곳을 유람하였다.<sup>18)</sup> 그리고 두 번째 유람은 이듬해 10월에 이루어지는데, 도갑사에 들러 하룻밤 자

18) 『文谷年譜』, 四十九年丙辰年, 十二月 遊月出山 歷牛車孤山龍巖諸菴 宿道岬寺而歸 有詩十數篇.

고 돌아와 시 십 수 편을 남겼다<sup>19)</sup>라고 하였다. 이때도 말이 창집을 비롯 네 명의 아들과 동행하였다.<sup>20)</sup> 이런 산행을 하던 중 만났던 크고 작은 절의 스님들은 대체로 문곡을 환대하며 반갑게 맞이해 주어 자연스러운 교유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들 중 도갑사의 法閑스님에 대한 문곡의 인상은 남달랐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은 『문곡집』 권3에 실려져 있는 〈道岬寺 書贈法閑上人〉의 서문 내용이다.

나는 절에 이르러 하루 밤을 자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나이 많은 스님인 法閑上人이 있어 순박하고 진실하여 가히 더불어 이야기할 수 있었다. 나에게서 시를 심히 간절히 구하였다. 나는 인하여 그가 가지고 있는 것(마음속에 품고 있는 뜻)을 두드렸다. 법한상인이 말하여 이르기를 “마치 양식이 떨어진 듯이 면벽하고서 설법의 자리를 높이 드니 내가 根塵에 빠지는데 이를 수는 없었고, 계율을 무릅쓰고 범패를 노래부르면서 마음으로는 서투른 중이 되었느니 또한 나의 수치스러운 바이다”라고 하니 나는 (그것을) 듣고 가상히 여겼다. 우리 儒門에 비유하자면, 그 거의 도에서도 떠나지 아니하고 속세도 끊어버리지 않는 류가 아닌가?<sup>21)</sup>

법한상인에 대한 문곡의 첫인상은 순박하고 진실하다는 것이었다. 법한상인도 문곡의 중앙에서의 위치와 문인으로서의 기질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융숭한 대접과 아울러 시 한 수를 간절히 부탁한다. 그런데 문곡은 사실 법한스님에 대해 아는 바가 별로 없어 마음 속에 품고 있는 뜻하는 바를 물었던 것이다. 법한스님은 ‘설법을 높이 드니 속세에 빠지지 않았고, 그러면서도 서투른 중이 되니 부끄러울 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다. 이 말을 들은 문곡은 법한스님에 대해 평하기를 ‘도에서도 떠나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속세의 인연을 끊어버린 사람’이 아니라고 결론짓는다. 뿐만 아니라 같은 도갑사

19) 『文谷年譜』, 五十年丁巳年, 十月 訪道岬寺 一宿而還 有詩十數篇.

20) 네 명의 아들과 동행했음을 알게 해주는 詩題로 『文谷集』 卷4의 ‘十月初一日 攜集·協·緝·立諸兒 爲月出之遊 入山有作’과 같은 작품이 있다.

21) 『文谷集』 卷3, 道岬寺 書贈法閑上人 并序, 余爲至寺一宿而歸 有長老法閑者淳實可與語 求余詩甚勤 余仍叩其所存 則閑之言曰 若絶粒面壁 抗尊法席 則吾不能至於汨根塵 冒戒律口梵唄而心馳僧 亦吾之所恥也 余聞而嘉之 譬之吾家 其殆不離道不絶俗之流歟.

에서 만난 승잠스님에게도 〈重訪道岬寺 書贈勝岑上人〉이라는 시문을 지어 주는데, 만나서 반갑게 환대받고 헤어짐의 아쉬움을 적고 있다.<sup>22)</sup> 또한 이러한 불승들과의 인연은 결국 작은 암자의 이름을 지어주는 데까지 이르는데, 그의 문집 권26에 실려져 있는 〈水南寺記〉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절은 오래되도록 이름이 없었으나 그 도감을 남쪽한 것으로 불러 '南菴'이라고 하였다. 내가 고쳐서 명명하기를 '水南'이라 하고 그 누를 이름하여 '山翠'라고 하니 누의 사면이 모두 산임에 푸르름이 항상 둘러져서 이러한 뜻이 實景에 합당하였다. 玉烈이 이로 인하여 나에게 한 마디의 말로 기록할 것을 청하였는데, 이 땅이 불행하게 도선국사를 만나지 못하였다면 천 백년 오랫동안 잡초가 우거졌을 것이요, 다행히 敏禪師을 만나 천 백년 뒤에야 개척되었으니 기이하다고 이를 만하다. 만약 내가 와서 놀았더라면 잡초가 우거지는 날이 없었을 것인데 개척한 다음에 오게되어 그 또한 다행이요 불행은 아니다.<sup>23)</sup>

절은 원래 제 이름을 갖지 못하고 南菴이라는 암자의 이름을 지니고 있었는데, 玉烈 스님이 주변 승경과 어울리게 지어줄 것을 요청하니 문곡이 水南寺라고 명명했다는 내용이다. 문곡은 이처럼 절의 스님들과 자연스러운 교유를 하며 시문으로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데, 이는 사상이나 이념이 내재된 만물이 아닌 인간 대 인간의 순수한 정신 세계의 교유라고 할 수 있겠다.

한편, 향촌 사족과의 교유는 스님의 경우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구림은 영암의 대표적인 班村 마을로 대개 이 반촌을 형성한 대표 성씨로 善山林氏, 咸陽朴氏, 延州玄氏, 昌寧曹氏, 海州崔氏, 朗州崔氏 등을 든다. 이들 중 함양박씨가 가장 먼저 입성하였고(1480년경), 이어서 연주현씨(1500년경), 선산임씨(1530년경), 해주최씨(1560년경), 창령조씨(1570년경), 남주최씨(1620년경) 등이 차례로 구림에 터를 잡았던 것으로 나타난다.<sup>24)</sup> 이들은 각자의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견제를 하기도 했지만 하나

22) 『文谷集』卷4, 重訪道岬寺 書贈勝岑上人, 海國秋初盡 / 山房客又來 / 貪看楓葉樹 / 爛醉菊花杯 / 細水遙通覽 / 層巖自作臺 / 居僧解惜別 / 欲去重徘徊.

23) 『文谷集』卷26, 水南寺記, 寺久無名 以其南於道岬 喚爲南菴 余改命曰水南 名其樓曰山翠 以樓之四面皆山 蒼翠常環 合於此志實境也 烈仍請余一言以記之 茲地也不幸而不遭訛公 蕪沒千百年之久 幸而遭敏師 得以開拓於千百年之後 可謂奇矣 若余之來游 不在蕪沒之日 而在開拓之後 其亦幸也 非不幸也.

24) 구림의 대표 성씨에 대한 개략적인 이해는 『왕인과 도선의 마을 구림』(사단법인

의 구심체를 만들어 협력도 아끼지 않았다. 즉, 1565년에 창립한 鳩林大同契를 구심 역할의 대표로 언급할 수 있다. 구림대동계는 엄격한 內規를 만들어 문중간 강한 결속력을 보였는데, 1646년 대동계원의 전용 공간인 會社亭이 건립되면서 그 절정에까지 이르렀다.<sup>25)</sup>

문곡이 구림에 오게 된 것은 이로부터 약 30년 후이다. 이때 구림은 여느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향리의 사족 지위가 변화되면서 성씨나 門族間의 분화현상이 露呈되고 있었다. 가령, 구림을 대표하는 祠宇·書院·누정 등이 이 기간에 집중적으로 건립되고 있음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sup>26)</sup> 다시 말해 각 문중 간 경쟁도 치열했을 것인데, 문곡과 같은 중앙의 유명 인사가 마을에 들어오자 사족들은 고무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는 문곡을 환대하는 사족들의 태도에서도 읽어낼 수 있다.

出洞攜餘興 마을을 나서는데 남은 흥이 일어나는데  
班荊坐水濱 班荊들 물가에 앉아있구나  
仍傾不盡酒 이내 기울여도 술은 다하지 아니하여  
更挽欲歸人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 붙들고있네  
石閣寒波古 바위는 찬 물결을 겪어선지 오래되었고  
山含夕景新 산은 저녁 경치 머금어 새롭구나  
淸遊翻似夢 맑은 놀음이 문득 꿈과 같으니  
自覺首回頻 절로 머리가 돌아감을 깨닫겠구나<sup>27)</sup>

향토문화진흥원, 1992), pp.119~136 참조.

25) 영암 구림대동계 연구는 다음 논문 참조.

김경옥, 「조선후기 영암사족과 서원」, 『호남문화연구』 20집, 전남대 호남문화연구소, 1991.

이종휘, 「조선후기에 실시된 구림대동계의 성격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이해준, 「조선후기 영암지방 동계의 성립배경과 성격」, 『전남사학』 2집, 전남사학회, 1988.

최재율, 「한국 농촌의 향약계 연구-구림 대동계의 연구를 중심으로-」, 『전남대논문집』 19, 1973.

26) 1677년에 西湖祠(창령 조씨)·1678년에 竹林亭(연주 현씨)·1681년에 竹亭書院(함양 박씨) 등이 불과 2~3 사이에 한 마을에 건립되었음은 눈여겨 보아야 할 대목이다. 이해준, 전제논문 참조.

27) 「文谷集」 卷4, 出洞口下馬溪邊 與鳩林諸人小酌.

동구를 나오다 구립 사람들이 모여있어 함께 주연을 즐겼다는 것이 위의 전체적인 내용이다. 1구의 班荊은 구립 사족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는데, 2구의 내용을 통해서 주연을 빨리 끝마치고 가려는 문곡을 애써 붙잡으려하는 모습이 연상된다.

특히, 문곡은 여섯 사족 중에서 함양박씨, 창령조씨, 연주현씨 등과 주로 교유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먼저, 함양박씨는 五恨公 朴成乾(1418~1487) 때부터 구립에 터를 잡고 살게 되었는데, 오한공은 경기체가인 〈錦城別曲〉의 저자로도 알려져 있다.<sup>28)</sup> 그리고 오한공은 權·栗·木條·桂·楨의 다섯 형제를 두었는데, 이중 박권은 연산조에 왕의 淫虐을 보다못해 直言을 하다 결국 吉州로 귀양을 가기도 하였다. 또한 셋째 박조의 장남인 朴奎精은 호가 壽翁으로 당시 마을 동장이 되어 구립대동계를 창설할 때 지대한 공을 세운 이로 알려져 있다. 이를 보면, 당시 향촌에서 차지한 오한공의 위치가 보통 이상이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특히 박규정은 鸞峰 高敬命과도 친분이 있었음을 다음 글은 말해준다.

공의 증손 世卿이 우연히 남의 집에서 제봉 고경명이 공에 증정한 시 칠언 절구 5수를 얻어냈다. 감개무량하여 사모의 정이 일어나고 또 그 분의 遺蹟을 오히려 증거할 수 있음을 기뻐하였다. 그래서 畫工에게 명하여 세 섬의 그림을 그리게 하고는 나에게 제봉의 시에 대한 글을 쓰고 아울러 그 운자에 화하여 아래에 부쳐주라고 부탁하였다. 그리하여 조그마한 병풍을 만들어 눈으로 보면서 사모의 정을 잊지 않으려는 일을 도모하였다.<sup>29)</sup>

박세경은 당대 유명한 시인인 고경명이 자신의 조상과 서로 교유했다는 사실에 무한한 자부심을 느껴 당시 구립에 와 있던 문곡에게 가 그러한 사

28) 오한공은 원래 錦城, 즉 지금의 전남 羅州에서 살았는데 영암 구립으로 이거하였다. 이런 내용은 농암 김창협과 三洲 李穡가 각각 지은 〈五恨先生三世行錄〉 참조. 또한 오한공과 문중문헌에 대한 이해는 줄고, 「門中文獻의 기록범위와 자료의 활용가능성 -영암 구립 咸陽朴氏 五恨公派 문헌을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4권2호(학연문화사, 2001), pp.131~167 참조. 그리고 〈금성별곡〉에 대한 연구는 李相賢, 「朴成乾의 '錦城別曲'小考」, 『明大新聞』 201호, 1975 참조.

29) 金壽恒, <家藏屏風序>, 公之曾孫世卿 適從人家 得鸞峯高公所贈公詩七言絕句五首 慨然興慕 且喜其遺蹟之尚可徵也 將命工爲三島之圖 屬余書鸞峯詩并和其韻 以附於下 謀作一小屏 以目擊而羹牆焉.

정을 이야기했을 것이다. 그리고 마침 박규정의 호가 三島壽翁이므로 거기에 걸맞게 화공에게 시켜 병풍을 그리게 할 것이니 병풍의 서문과 아울러 고경명 시에 차운해 줄 것을 문곡에게 요청했던 것이다. 문곡이 이에 대해 답해 준 작품이 바로 <題壽翁壁上韻> 5수이다.<sup>30)</sup>

다음은 그 중 두 번째 작품으로 박규정이 벼슬에 나가지 않고 외진 시골에서 끝까지 살아갔던 모습을 연상하고 있다.

荷衣終不換朱輪 연잎 옷을 끝내 붉은 수레바퀴로 바꾸지 않고  
尙想山冠岸白綸 오히려 산관으로 흰 윤건 비스듬히 쓴 것이 연상되네  
休遵典刑今已遠 아름다운 전형을 이으려 하나 이제 이미 멀어지고  
岫雲江月是傳神 산 구름과 강월만이 그 정신 전해주네<sup>31)</sup>

연잎 옷과 朱輪은 서로 대립되는 개념으로 전자가 處士의 의미라면 후자는 높은 고위관직을 뜻한다고 하겠다. 그런데 박규정은 평생 전자의 삶을 살았지 후자에 뜻을 두지는 않았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향촌에서는 존경받는 인물이었으니 문곡이 그런 박규정의 뜻을 따르려고 했으나 이제는 생존하지 않아 아쉽다라고 적고 있다.

다음은 창령조씨와의 교유이다. 창령조씨는 시조 曹繼龍의 29세손인 曹麒瑞때 구림에 처음 터를 닦았는데, 그의 둘째 아들 曹行立(1580~1603)에 접어들어 향촌의 유력한 사족으로 성장한다. 조행립은 인조반정 후 온양군수를 지냈고, 67세 되던 1646년 구림대동계를 중흥시켰는가 하면, 회사정 건립을 주도하는 등 앞의 박규정과 함께 당시 구림을 이끈 인물이었다. 다음 글은 문곡이 쓴 조행립의 묘지명인데, 조행립의 행적과 아울러 마을 내에서 차지한 위치 등을 알 수 있게 한다.

을묘년 나는 남쪽에 엮매인 바가 되어 영암 구림리에 우거하게 되었는데, 즉 옛날 철지중후부사 曹公의 은거지이다. 이때에 조공은 세상을 뜬지 이미 10여 년이었으나 그 후손들은 오히려 살고 있었다. 마을 가운데에 정자가 있으니

30) 『文谷集』 卷4에 <題壽翁壁上韻> 작품이 실려져 있는데, <爲朴君世卿 次高齋峯贈其曾祖朴壽翁韻>이라는 제목으로 되어있다.

31) 『文谷集』 卷4, 爲朴君世卿 次高齋峯贈其曾祖朴壽翁韻.

‘회사정’이라고 하는데 鄉約과 鄉飲을 닮은 곳이다. 또 바로 몇 리쯤에 서당을 짓고 스승을 두어 촌의 빼어난 사람들을 모아 가르치니 모두 조공이 창설한 것이다. 풍속을 함께 하고 영재를 교육했던 것으로 마을 사람들이 능히 조공의 일을 말하였다. (중략) 그 가장 나이 드신 어르신이 또 나를 위하여 말하기를 “조공이 나이 들어 돌아왔으나 족적이 오히려 쇠하지 아니하여 좋은 날 문득 생선을 잡고 술을 명하여 친척을 부르고 조카들을 좇아 가벼운 가마와 작은칼로 山海의 즐거움을 다하니 그를 바라봄에 마치 신선과 같았다”라고 하였다. 공은 진실로 좋은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으로 나는 소문을 듣고 심적으로 그를 부러워하였다. 조공이 생존한 때에 미처 잔을 한 번 나누는 즐거움을 갖지 못한 것이 한스러울 뿐이었다.<sup>32)</sup>

조행립이 살아생전 향촌 교육에 열의를 보여 세상을 뜬 지가 벌써 10년 정도 흘렀는데도 아직까지도 마을 사람들은 추앙받을 인물로 이야기하니 문곡 자신이 직접 만나보지 못함을 못내 아쉬워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조행립은 모두 다섯 아들을 둔 것으로 나타나는데, 문곡과 직접 교유한 사람은 셋째 曹敬孳이다. 위 묘지명을 제작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문곡은 ‘공의 후손들이 손수 공의 행장을 써서 나에게 묘지명을 청하였으나 나는 이미 사양함을 얻지 못했다’<sup>33)</sup>라고 적고 있는데, 조정찬의 강력한 부탁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조정찬은 또한 ‘安用堂’이라는 자신의 당을 짓고는 문곡에게 그에 대한 기문을 써 줄 것을 부탁한다. 이에 대해 문곡은 〈安用堂記〉를 지어주는데, 다음 글은 그 기문의 일부분이다.

하산 曹仲直 어르신은 본래 世祿의 자손으로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어려서 그의 부친을 모시고 朗州 鳩林村에 피하여 와 이내 살게 되었다. (중략) 나는 세상의 한가로움에 노닌 자들이 조장자와 같지 않음을 안다. 그러나 지위와 명망이 높아짐을 그리워하고 가리워 감추어짐을 싫어함은 조장자가 어찌 다른

32) 『文谷集』 卷19, 僉知中樞府事曹公墓誌銘并序, 歲乙卯 余禦魃于南寓靈巖之鳩林里 卽故僉樞曹公菴葬也 時曹公歿已十餘年 其諸子尙居之 中里有亭曰會社 修鄉約鄉飲之所也 又直數里許 建塾置師 聚村秀教之 皆曹公所創設 以厚俗育才者云 里之人猶能道曹公事 (中略) 其長老又爲余言 曹公之老而歸也 視履尙不衰 嘉辰勝日 輒擊鮮命酒 呼戚執從子姓 輕籃小刀 以極山海之娛 望之若神仙焉 公眞善人 亦福人也 余聞而心豔之 恨不及曹公在時 一稱觴周旋之爲快也已.

33) 『文谷集』 卷19, 僉知中樞府事曹公墓誌銘并序, 公之諸子手公狀 問誌於余 余旣辭不獲.

사람과 다르겠는가? 나는 조장자가 어려서 과거 시험을 익히지 아니하고 방종하기를 즐기고 스스로 놓아 비록 뛰어난 인물의 배열에 참여하지는 못하나 그 氣義와 幹局 같은 것이 지금의 많은 집사자와 비하면 지나침은 있어도 미치지 아니함은 없는 것을 보았다. (중략) 포의로 백발됨을 사람들이 모두 안타깝고 애석하게 여겼으나 조장자는 바야흐로 또한 자득하며 한가로워 근심하는 기색을 볼 수 없었으니 아니 이른바 그 운명을 편안히 하여 밖에서 구하는 것이 없어서였던가? 그 지난번 요행에 바빠서 더럽고 형벌의 사이에서 늙어 죽은 사람과 비교하면 과연 어떠한가?<sup>34)</sup>

조경찬이 벼슬살이를 하진 않았지만, 그 스스로 자족하며 한가로운 생활을 즐긴 것에 대해 예찬하고 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말로는 한가롭게 노닌다고 하지만, 실지 생활은 명망을 쫓는 자가 많은데 조경찬은 그러한 근심에서 벗어나 자족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 것이다. 이렇듯 조경찬에게 부친의 묘지 명파 당의 기문을 써준 문곡은 〈朗州의 여덟 절구를 생각하며 구림의 못 사람들에게 부치다(『文谷集』卷5, 憶朗州八絕 寄鳩林諸君)〉라는 시문 네 번째에서도 ‘安用堂 늙은이 / 평생 앓은 구름에 뜻을 두었네 / 편안한 湖海의 기운 / 문득 廣陵의 무덤에 묻혔다오’<sup>35)</sup>라고 하여 조경찬의 한적한 삶을 높이 기리고 있다.

다음은 연주현씨와의 교유이다. 연주현씨가 구림에 처음 터를 잡기 시작한 것은 시조 玄覃胤의 12세손인 玄允明 때부터이다. 현윤명은 구림의 선착 성씨인 난포박씨 朴地蕃의 사위로 처가를 따라 구림에 정착한 것으로 판단된다. 구림에서 연주현씨의 동족 기반을 다지는데 크게 기여를 한 사람은 현윤명의 증손인 玄健으로 그는 구림대동계 중수에 참여하였고, 또한 회사정 건립을 주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곡이 연주현씨와 인연을 맺게된 것은 현건의 손자인 玄徵(1629~1702) 때부터이다. 연주현씨 족보에 의하면, ‘현징의 자는 士休로 참봉 벼슬을 하였

34) 『文谷集』卷26, 安用堂記, 夏山曹仲宣丈 本世祿之胄 生于京師 少奉其家大人 避地朗州之鳩林村 仍居焉 (中略) 吾知世之閒適者 莫曹丈若也 然慕通顯而惡沈晦 曹丈豈異於人哉 余觀曹丈少不習公車業 樂弛置自放 雖不得與於俊造之列 而若其氣義幹局 視今之爲百執事者 有過而無不及焉 (中略) 皓首布衣 人皆嗟惜 而曹丈方且優游自得 未見有戚戚色 豈所謂安其命 無求於外者耶 其視向之奔走微倖 老死於污穢刑辟之間者 果何如也.

35) 『文谷集』卷5, 憶朗州八絕 寄鳩林諸君 其四, 安用堂中老 / 平生義薄雲 / 居然湖海氣 / 埋却廣陵墳.

는데, 관직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와 竹林亭을 지어 竹林翁이라는 호가 붙었다. 김수항이 시와 기를 지어 그를 찬미하였다'36)라고 하였다.

다음 글 내용은 죽림정이라는 樓名도 결국 문곡이 지어주었음을 말한 것인데, 그 교유 정도를 알게 해준다.

내가 그 까닭을 물으니 곧 한숨을 내어 쉬며 말하기를 “내 집과 몇 리 떨어진 곳에 나의 숙부 慶郎公의 별장이 있었는데, 원림에 있는 臺와 沼의 경치가 한 고을에 드러나 가히 옛날의 輞口卯橋라고 칭하는 것과 그 으뜸을 다투었습니다. 한 정자를 그 사이에 지어 편액을 就陰이라고 한 것은 숙부가 즐거움을 부친 것입니다. 불행히 숙부가 세상을 뜬 후로 화를 입어 패하고 유랑하여 후손들이 능히 가업을 보존하지 못하니 십 수년이 되지 못하여 옛날에 살았던 곳은 이미 남은 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우뚝 서 마치 노둔한 큰집만은 다만 그 정자일 뿐이었는데, 또 장차 그 재물들을 철거하여 재물로 여겨 촌민의 소유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에 민망히 여겨 마음에 참지 못할 바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 값을 돌려주어 여기에다 옮기어 지어 숙부의 옛 것을 폐함이 없기를 바랬습니다. 그대가 다행히 내 정자에 이름을 부치는데 이러한 뜻으로 써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였다. 내가 일어서서 “이에 있도다. 사후의 작은아버지에게 독실함이어!”라고 이르며, 이름을 지어 청하여 말하기를 “죽림이 좋겠습니다”라고 하였다.37)

현징이 처음 문곡에게 누정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요청하자 문곡은 ‘보통 누명을 지을 때는 箴警과 寓興, 山川景物로써 하는데, 무엇을 뜻 삼아 이름으로 하는 것이 좋겠는가?’라고 한다. 이에 대해 현징은 자신의 처지에서는 이 세 가지 모두 누명의 뜻으로 삼기 어렵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로 말한 것이 위 문장의 내용이다. 즉, 현징의 집과 조금 떨어진 곳에 ‘就陰亭’이라는 숙부의 별장이 있었는데, 주변 경관이 아름답기로 유명했었다고 한다. 그런

36) 『延州玄氏族譜』玄徽, 字士休 崇禎己巳生 庚子司馬 庚申拜光陵參奉 直所值親忌傷 嘆而棄官 歸作亭 扁曰竹林 因號曰竹林翁 文谷金相公壽恒 作詩記以美之 教導後學文化蔚興 肅宗壬午正月十六日終.

37) 『文谷集』卷26, 竹林亭記, 余請其故 則乃歎歎而言曰去吾舍數里 吾叔父廢郎公別業在焉 園林臺沼 擅勝於一鄉 可與古所稱輞口卯橋爭其霸矣 築一亭其中 顏曰就陰 卽叔父之所寄傲也 不幸叔父歿世禍敗蕩析 後承不能保家業 未及十數稔 而舊居已爲墟矣 其巋然如魯殿者 獨其亭在耳 又將撤其材而貨之 爲村民之所有 則吾於是慙然有不忍於心者 遂歸其直而移構于此 冀以無廢叔父之舊焉 子幸而名吾亭 願用是志之也 余作而曰 有是哉 士休之篤於親也 請名之曰竹林可乎

데 숙부가 세상을 뜨자 후손들이 가업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여 수십 년이 되도록 방치하니 터만 남게 되었고, 누정의 재목도 철거하여 촌민의 소유물이 되어 현정이 민망히 여겨 참을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한다. 그래서 값을 제대로 주고 되찾아 다시 누명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러한 본인의 뜻이 담겼으면 하니, 문곡은 '죽림이 좋겠구나'라고 했던 것이다.

그리고 위 글 다음에서 문곡은 누명을 죽림정이라고 한 이유로 중국 위진 남북조 시대에 죽림에 모여 거문고와 술을 즐기며 淸談으로 세월을 보냈던 竹林七賢의 경우를 들어 설명한다. 즉, 완적과 완함의 숙질사이이면서도 사이 좋게 함께 칠현 속에 포함되었듯이 현정과 침랑공도 마찬가지로 서로 숙질사이이면서도 그 친밀함이 강하니 죽림칠현의 이름을 따서 죽림정이라고 한 이 좋겠구나라고 했던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라 문곡은 〈竹林亭 10詠〉을 지어 주는데,<sup>38)</sup> 이를 보면 죽림정이 비록 현정의 누정이라고는 하지만 문곡과 떼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상 문곡이 영암으로 유배 온 이후 교유한 향촌 인사와 시문제작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는 월출산의 크고 작은 절에 있는 스님과의 교유와 구림마을 향촌 사족과의 교유로 대별할 수 있었다. 이중 특히 향촌 사족과 폭넓은 교유를 했는데, 이는 자신의 신분적 위치 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문곡이 유배라는 특수한 상황에 처해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낭만주의적인 시문을 제작한 이유로 구림이 주로 사족 계층이 중심이 된 마을이라는 사실과 완전히 떼어서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 4. 시문 교유의 持續과 의미

영암에 유배 온 문곡은 만 3년이 지난 50세 9월이 되자 영암을 떠나게 된

38) 〈죽림정 10영〉은 東嶺霽月 / 北亭長松 / 南畝農謳 / 西湖漁歌 / 後園賞春 / 前川觀漲 / 九井霜楓 / 孤山雪梅 / 聖洞朝烟 / 鵝峰夕照 등의 시제로 되어 있다. 특이한 것은 문곡의 〈죽림정 10영〉을 뒤이어서 그의 아들들인 농암과 삼연이 각각 수창했다는 점이다. 이는 문곡 집안과 구림의 연주현씨가와의 친밀 정도를 읽어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다. 처음 영암에 왔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특히 촌의 궁벽진 생활에 익숙치 못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향촌 사족들을 비롯한 많은 이들의 人情은 그를 감복시키기에 충분하였다. 때문에 〈조경찬 어르신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겸하여 구림의 모든 이에게 보이노라(留別曹丈敬璨 兼示鳩林諸人)〉의 시문에서, '4년을 瘴江 가에서 사노라니 / 월출산 천황봉 대하기 친숙하네 / 이제 북으로 돌아가며 머리 돌려 바라보니 / 峴山 진실로 고향 사람 같구나'<sup>39)</sup>라고 하여 구림인과의 이별을 못내 아쉬워하고 있다. 특히, 구림 사족 중에서 연주현씨자와의 인연을 가장 각별하게 생각했던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다음의 시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

西湖十里竹園村 西湖 십리 대나무 두른 마을에  
最憶君家近水軒 가장 떠오르는 건 그대 집이 물난간에 가까웠던 것  
嚙昔勝遊那復得 지난날 승경에서 노닐던 것 어찌 다시 할진가?  
白頭今作斷腸猿 백발인 지금 斷腸猿을 짓고있네<sup>40)</sup>

현징의 아들인 玄若昊(1659~1709)에게 준 시이다. 현약호도 현징과 마찬가지로 향촌에서 주로 활동하여 그리 알려진 인물은 아니다. 때문에 현재 출판된 사전을 통해서도 그에 대한 약력은 정확히 알 수 없다.<sup>41)</sup> 다만, 『연주현씨족보』에 '현약호는 자가 欽甫이고, 부친은 徵이다. 숙종 기해년에 태어났고, 바른 지조와 아름다운 행실이 있었다. 손수 松·栢·竹을 심어 당에 편액하기를 三碧이라고 하였다. 우암 선생이 편액에 글씨를 써주었고, 특히 崇禎 日月을 써서 표가 나게 하였다. 농암·삼연 등의 선생이 序歌로써 찬미하였다'라고 적고 있다. 농암과 삼연이 서와 가로 찬미했다는 말은 〈贈玄生若昊序〉와 〈竹林亭 10詠〉을 두고 이른 것으로 생각된다.

위시는 과거를 회고하는 식으로 내용이 엮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문곡이

39) 『文谷集』 卷4, 留別曹丈敬璨 兼示鳩林諸人, 四年蘭佩瘴江濱 / 月出千峰相對親 / 今日北歸回首望 / 峴山眞似故鄉人.

40) 『文谷集』 卷5, 題扇別玄若昊.

41) 李斗熙 외 3인 공저, 『韓國人名字號辭典』(계명출판사, 1988), p.421을 보면, 현징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다. 다만, 현약호에 대해서는 생몰연대는 ?~1709년이요, 학자이면서 자는 欽甫이고, 호는 三碧堂, 본관은 星州라고 되어 있다. 본관이 성주로 된 것은 연주현씨를 星山玄氏라고 한 데에서 연유했을 것이다.

영암 생활을 청산하고 서울로 다시 올라간 후에 지은 것으로 판단된다. 문곡의 구림 관련 시문을 보면, 대나무가 주변에 많다라는 말을 자주 언급하였는데, 起句에서도 그러한 사실을 적고 있다. 그리고 承句에서는 구림을 생각할 때 현악호 집이 가장 많이 생각난다라고 하며 자신의 소회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친분 정도는 解配되어 약 15년이 지나 문곡이 구림을 다시 찾았을 때 현씨의 정자인 죽림정에서 며칠간 묵으며 시문을 남기기까지 한 것에도 읽어낼 수 있다.<sup>42)</sup> 먼 여행길에서 어느 정도의 친분이 아니라면, 머물지 않았을 것인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이런 현씨가와의 교유는 문곡의 뒤를 이은 농암·삼연에게까지 이어지는데, 다음에 열거한 시제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次子益韻贈玄生若吳 5수(권4)

玄生行 口占三絶 附寄其大人 3수(권4)

竹林亭十詠 10수(권4)

贈玄生若吳序(권21) 《이상 『農巖集』 소재 시제》

玄欽甫若吳歷險遠訪 至意不可以言謝 輒以一詩剖懷 2수(권5)

玄參奉徵挽 4수(권8)

玄欽甫挽 2수(권8)

三碧堂記(권24)

題玄參奉所藏先人簡牘後(권25)

別玄欽甫若吳南還(拾遺 권1)

竹林亭十詠(습유 권2)

玄參奉竹林亭(습유 권4)

陪家君南還 重到竹林亭滯雨感興(습유 권4)

陪家大人重過鳩林 夜宿竹林亭敘懷(습유 권4)

玄欽甫歷險遠訪 至意不可以言謝 輒以一詩剖懷 2수(습유 권5)

贈玄欽甫(습유 권5)

次欽甫韻(습유 권5)

42) 『文谷集』 卷6, 己巳二月二十五日 到鳩林玄參奉家中火 阻雨仍留 玄家外堂號爲竹林亭 余曾作記者也 月出面目 對之依然 堂中有映山紅一盆冬柏一盆方盛開 映山紅開花非其時 而就暖滋養 花豔照耀可愛 偶值吾行 若相期者然 亦可異也 主人設酒食以慰之 曹一遵朴泰初及里中諸人 皆來會作穩 十年之後 復到此地 與舊時知友把酒譚敘 眞可謂相對如夢寐也 人事之不可料者有如此 余口占一絶 示諸人云 己巳, 南鄉眞覺有前緣 / 受袂重來十五年 / 春雨竹亭留永夕 / 月山蒼翠夢依然.

次舍伯去歲韻 別三碧主人還南(습유 권5)  
 三碧堂寄題 2수(습유 권5)  
 次家兄去歲韻 遙呈竹林丈席 4수(습유 권5)  
 玄參奉徵挽之五(습유 권6)  
 玄欽甫挽之一(습유 권7) 《이상 『三淵集』 소재 시제》

먼저 농암은 〈중현생약호서〉에서 ‘현약호가 나의 말과 문자의 일을 좇았다’<sup>43)</sup>라고 하여 현약호가 자신을 추종했음을 적고 있다. 농암은 이러한 현약호에게 비록 궁벽진 시골에 살고 있지만, 그것에 개의치 말고 자신의 의지를 소신있게 펼쳐 보이라고 충고한다.<sup>44)</sup> 농암이 현약호보다 여덟 살이 위인데 인생 선배로서 조언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현약호는 자신보다 여섯 살 위인 삼연도 추종하여 심지어는 추운 겨울 험한 礮溪까지 찾아가 자신의 당인 三碧堂의 기문을 써 줄 것을 요청한다.<sup>45)</sup> 己巳換局에 휘말려 부친이 이미 세상을 뜬 후 삼연은 세속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생활하기 시작하는데, 벽계는 그의 나이 42세에서 47세까지 있었던 곳이다. 벽계야말로 궁벽한 곳에 있었기 때문에 보통 정성이 아니라면 찾아오기 힘들텐데 현약호는 不遠千里하고 삼연을 찾아갔던 것이다. 하지만, 삼연은 이런 현약호의 정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筆硯이 불살라졌다’라고 하며, 처음에는 기문 써주는 것을 거절한다. 부친의 죽음이 가져다준 충격이 너무 커 거의 絶筆하다시피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약호는 문곡이 죽림정기를 써 준 것처럼 삼연도 자신에게 기문을 써주어야 한다는 논리를 펴 결국 삼연은 기문을 써주게 된다. 이런 교유로 인하여 삼연은 자신보다 먼저 현정과 현약호가 세상을 뜨자 이들을 기리는 시를 남겼던 것이다.

43) 『農巖集』 卷21, 贈玄生若吳序, 玄君欽甫之從余言文字事也.

44) 『農巖集』 卷21, 贈玄生若吳序, 夫古之以瑰璋文學之士稱焉者 其人豈皆出於三河豐鎬之間 而俗豈盡鄒魯哉 往往奮於遐陬夷蠻之鄉 而能傑然自立 聲施後世者 亦其志遠而能篤爾 今夫水志於海 故日夜以流 不百折而沮也 不千里而足也 終亦必達而後已 士之有志 亦何以異此哉.

45) 『三淵集』 卷24, 三碧堂記, 玄君欽甫從千里命駕 訪我於礮溪之中 時方窮陰 衡門之外 雪至尋丈 炯然一燈 相與作土銼中語 已而相鳴咽也 如是者凡三夜 談話之所繚繞三周月 出山矣 臨別 欽甫以其堂三碧記爲託.

이상 문곡의 영암 해배 이후 향촌 사족과의 지속적인 시문 교류를 주로 농암·삼연을 통해서 살폈다. 문곡과 같은 유력인사가 한 향촌에 만 3년 정도 머물게 되면, 지역적으로도 그 영향 정도가 지대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 중에서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문곡을 개입시킴으로서 사족의 위치를 재고시킨 경우이다. 현재 영암읍 永保里에 있는 鹿洞書院에는 주향인 烟村 崔德之를 비롯하여 山堂 崔忠成, 그리고 문곡과 농암 등이 배향되어 있다. 처음에는 연촌과 그의 손자인 산당만이 배향되어 있었는데, 사액서원으로 되기까지 농암이 청액소를 올리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결국 문곡과 농암을 함께 배향하게 되었다고 한다.<sup>46)</sup> 결국 녹동서원은 문곡과 농암과 같은 유력 인사를 함께 배향함으로써 전주최씨 가문의 지역적 위치를 확고히 다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재 구림에는 1989년에 세워진 ‘文谷先生靈巖謫居遺跡之碑’가 있다. 이를 세운 주체가 현재까지도 구림대동계를 이끄는 여섯 성씨라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자못 크다고 하겠다. 즉, 이런 비 설립은 바로 구림이라는 한 마을의 정체성을 엿보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5. 맺음말

본 논고는 영암 유배 생활 당시 남겼던 문곡의 시문을 세 방향에서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첫째, 문곡은 소식이 유배를 갔던 것과 자신의 처지를 여러 면에서 동일시하였는데, 소식이 했던 것처럼 和陶詩를 제작한 것은 문곡도 진정한 전원 생활을 즐겼던 陶淵明의 유유자적하고 한적한 삶의 자세를 배우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문곡의 경물에 대한 인식대도라고 할 수 있다. 문곡은 자연 경물을 묘사하는데 있어 자신이 직접 거기에 개입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을 하지는 않는다. 다만 경물을 대하되 관조하

46) 녹동서원에 문곡과 농암이 배향되게 된 배경에 대한 이해는 김경옥, 전계논문, p.17~54 참조.

거나 낭만적인 자세를 갖추고자 한다. 때문에 자연 자체는 아름답게만 묘사되어 진솔한 삶의 모습은 엿볼 수 없게 되었다.

둘째, 문곡이 영암으로 유배 온 이후 교유한 향촌 인사와 시문제작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는 월출산의 크고 작은 절에 있는 스님과의 교유와 구림마을의 향촌 사족과의 교유로 대별할 수 있었다. 이중 향촌 사족과 폭넓은 교유를 했는데, 이는 자신의 신분적 위치 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문곡이 유배라는 특수한 상황에 처해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낭만주의적인 시문을 제작한 이유로 구림이 주로 사족 계층이 중심이 된 마을이라는 사실과 완전히 떼어서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셋째, 문곡의 영암 解配 이후 향촌 사족과의 지속적인 시문 교유를 주로 농암·삼연을 통해서 살폈다. 그 결과 구림의 유력한 여섯 성씨 중 연주현씨와 지속적으로 교유했음을 알 수 있었다.

현재 구림에는 1989년에 세워진 ‘文谷先生靈巖謫居遺跡之碑’가 있다. 이를 세운 주체가 현재까지도 구림대동계를 이끄는 여섯 성씨라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자못 크다고 하겠다. 즉, 이런 비 설립은 바로 구림이라는 한 마을의 정체성을 엿보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주제어 : 文谷 金壽恒, 全南 靈巖, 鳩林마을, 蘇軾, 月出山, 구림마을 士族, 농암 김창협, 삼연 김창흠

## 참고문헌

### 1. 자료

農巖集

文谷集

文谷年譜

三淵集

新增東國輿地勝覽

延州玄氏族譜

2. 논저

- 김경옥, 「조선후기 영암사족과 서원」, 『호남문화연구』 20집, 전남대 호남문화연구소, 1991.
- 박명희, 「文谷 金壽恒 시문에 投影된 月出山の 이미지」, 『湖南文化研究』 29집, 전남대 호남문화연구소, 2001.
- , 「門中文獻의 기록범위와 자료의 활용가능성 -영암 구림 咸陽朴氏 五恨公派 문헌을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4권2호, 학연문화사, 2001.
- 安未淑, 「金壽恒의 詩世界」, 『東洋漢文學研究』 제 11집, 동양한문학회, 1997.
- , 「김수항의 화도시 고찰」, 『수련어문논집』 25, 수련어문학회, 1999.
- 梁淳琰, 「文學社會學的 시각에서의 流配文學攷」, 『김기동박사 회갑기념논문집』, 학연사, 1986.
- 王水照 著 / 曹圭百 譯, 「중국의 문호 소동파」, 월인, 2001.
- 『왕인과 도선의 마을 구림』, 사단법인 향토문화진흥원, 1992.
- 李斗熙 외 3인 공저, 『韓國人名字號辭典』, 계명출판사, 1988.
- 李相寶, 「朴成乾의 ‘錦城別曲’小考」, 『明大新聞』 제 201호 1975.
- 이종휘, 「조선조에 실시된 구림대동계의 성격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 이해준, 「조선후기 영암지방 동계의 성립배경과 성격」, 『전남사학』 2집, 전남사학회, 1988.
- 정근식, 「지역사회의 장기구조사의 구상-구림을 중심으로-」, 『호남문화연구』 28집, 전남대 호남문화연구소, 2001.
- 최재술, 「한국 농촌의 향약계 연구-구림 대동계의 연구를 중심으로-」, 『전남대논문집』 19, 1973.
- 홍우흠, 「소동파 문학의 배경」, 영남대학교출판부, 1983.

Abstract

## Moon-gok Kim Soo-hang's poetry during his exile

Park, Myeong-Hui

Moon-gok Kim Soo-hang composed poetry during his time of exile in Young-am.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his poetry from three sides.

First, Kim Soo-hang didn't involve his personal feelings in describing nature and scenery. He only contemplated nature and scenery or viewed it romantically. In his poems, nature was just described beautifully, so no real (frank) aspect of life could be found in them.

Second, his poems can be investigated through his friendships with important figures in the village, a penal settlement. He usually kept in touch with monks in temples around Wol-chool mt. and with scholars in the village.

Third, even after he was freed from Young-am, he kept in contact with those people, by composing and exchanging poems with each other. He especially maintained contact with Nong-am(Lee Hyun-bo) and Sam-yeon(Kim Chang-heup).